

지금은 가상과 현실의 공존시대를 대비하는 시기입니다

이재홍*

지금은 가상과 현실, 그리고 기계와 기술과 콘텐츠와 서비스가 융복합하는 시대입니다. 따라서 저는 학생들에게도 자기 전공영역과 다른 전공영역을 넘나들며 복합 스펙을 만들어나가라는 말을 잔소리처럼 종종 하게 됩니다. 최근에 우리 문예창작전공은 본교가 주도하는 특성화학과 육성사업에 지원하여 특성화학과 B그룹에 선정되었고, 본교로부터 약간의 재정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상과 현실을 넘나드는 새로운 문화소통매체로서의 역동적인 문학의 역할을 교육목표의 한 부분으로 녹여냈기 때문에 관심을 받았다고 사료됩니다.

향후,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가상과 현실을 넘나드는 메타버스(Metaverse)시대로 조금씩 조금씩 이동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메타버스시대의 정점은 혼합현실(MR)기술과 다양한 4차산업적인 기술들이 융복합되어 가상과 현실의 경계를 초월하는 확장현실(XR)기술이 완성되는 디지털 지구시대가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SF 멜로드라마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2018)”에서 묘사되는 시대가 바로 확장현실(XR)기술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확장현실(XR)로 올곧게 가기 위해서는 가상과 현실을 자연스럽게 넘나들며 공존할 수 있는 기술적 준비가 꾸준히 이루어져야 하며, 다가올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인문학의 방향도 필연적으로 디지털지구시대에 발맞추어 함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 숭실대학교 예술창작학부 문예창작전공 교수

최근에 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라 위기에 봉착한 일부 대학들은 메타버스에서 새로운 탈출구를 모색하는 추세입니다. 우리 학과의 특성화에도 메타버스가 도입되고 있고, 본교에서도 메타버스 활용에 관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원장을 맡은 글로벌미래교육원 역시 시류에 편승하여 대대적인 개편작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취업과 산학협력이 중심이 되는 <메타버스 스쿨>과 한류의 열기에 편승함과 동시에 글로벌 유학생들까지 소화해낼 수 있는 <k-컬처스쿨>을 열어나갈 계획 하에 지금 개편작업에 돌입해 있습니다.

또 한 축은 베이비붐세대가 은퇴하는 시점에 발맞추어 제2의 삶을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으로 장·단기 <특별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평생교육 차원의 특별교육과정은 우리 인문대에서도 협력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혹시, 인문학 특별강좌들을 개설하실 의향이 있으신 분에게는 교육원에서 바로 서포트해 드릴 것입니다.

4차산업혁명이 서서히 속도를 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아무리 인공지능이 우리 인간들의 일자리를 빼앗아간다고 할지라도 융합되고 복합되는 영역에서 인문학적인 새로운 일자리는 더욱 많이 생성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상과 현실이 공존하는 시대를 위해 평생교육의 재정비 필요성을 생각하며 이 글을 마무리합니다.

- 1) 학령인구 절벽현상, 팬데믹 현상의 일상화에 따른 교육 방법 개선.
- 2) 선진 4만불시대에 변화하는 가치관을 충족시킬 수 있는 맞춤형 교육.
- 3) 산업(기계, 기술, 콘텐츠, 서비스 등)의 융복합에 따른 이공학과 인문학의 콜라보.
- 4) 베이비붐세대의 조기 정년퇴임에 따른 재취업 및 맞춤형 교육.
- 5) 산업생태변화에 따른 산업현장 전문교육 실현 및 사원 재교육.